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럽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6월 12일 (제85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게으름 = 무책임

예수께서 이 무익하고 악하며 게으른 종을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깨닫게 하시란다(마25:26~30).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보자. 참으로 사랑과 지혜의 말씀이 아닌가. 성경에 게으름은 더러움이요, 더러움은 악이요, 귀신의 속성이라며 예수께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며 쫓아 주셨다. 게으름은 귀신 때문이다. 쫓으면 된다는 말씀이다. 이제 게으른 자여! 거미줄만 걸지 말고 거미를 부지런히 잡아라. 나무란 본시 곧은 뿌리는 중심을 잡고 잔뿌리가 키우는 것이다. 기업과 국가는 책임감 있는 브레인인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다. 성공한 농사꾼도 부지런히 알곡을 골라 토양이 맞는 곳에 심어 100배를 거둔다. 어리석은 자여! 성공하길 원하냐? 부지런한 자 골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머리로 일을 해라. 반드시 너도 성공할 수 있다. 게으른 자여! 두려워 말고 녹슨 파이프라인을 갈아라. 생수가 신나고 힘차게 솟구칠 것이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며, 생각이 썩은 자에겐 기대 하지 말고 제거하라. 나는 단언하노라. 게으른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고.

"His master replied, 'You wicked, lazy servant, throw that worthless servant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Matthew 25:26~30)

Let us seriously consider why Jesus said this Scripture. Isn't it the words of love and wisdom? In the Bible it says that laziness is being dirty, evil is the essence of Satan. Jesus rebuked the evil and dirty demons and commanded them to leave. In other words, laziness comes from demons. It means we need to cast them out. So now you lazy people! Don't just clean the spiderweb but catch the spider itself.

A tree grows due to the rootlets while the main root sustains it's center. Business and a nation grows by its responsible brain. A successful farmer diligently chooses the right seeds for the right soil and gains a hundredfold.

You foolish, do you want to succeed? Work with the mind that can choose diligent workers and put them in the right position. You will succeed. Change the rusted pipeline, then fresh water will overflow. Just like you don't give water to a tree with rotten roots, don't rely on people with rotten minds. "Remove them." I declare, there is nothing to be expected from a lazy person.

임금도 가려운 곳은 자기가 긁어야 시원하다

이초석 목사님은 교육국 담임 목사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다. 5월 말, 교육국 담당 임원 교육을 하시고, 6월 3일 JC 아카데미에서의 열강에 이어 다음 날인 4일,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여 어린 학생들이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을 전하셨다. "나는 친손자, 친손녀가 없다. 너희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다. 호랑이도 고양이에게 배우면 '야옹' 하면서 사람이 주는 죽은 것이나 먹고 살지만, 고양이가 호랑이에게 배우면 몸집은 작지만 담대하게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단다. 너희

천 명의 국내외 브레인들을 모아 국가 발전을 도모했지. 먼저 수로를 만드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의 두바이를 만들었다. 이것이 지혜요, 지식의 결과란다. 내가 아는 대기업의 회장 이야기를 할까? 그 분이 어릴 당시는 우리나라는 끼니 때우기도 힘든 어려운 시절이었단다. 그 분 집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서 지혜로운 분이셨단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지. 그리고 당시 신문팔이를 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 지혜를 가지고 하라'고 교육했단다. 그런데 그가 신문을 파는데 남들보다 몇 배로 잘 팔았단다. 어떻게 했는

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아는 것만큼 지배하게 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불어 공부해야 한다. 이제 영어와 중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사막에는 수로가 기본이듯, 영어와 중국어는 글로벌 시대에 기본이야. '임금님도 가려운 곳은 자기가 긁어야 시원하다'는 말이 있다. 내가 알아야 편하다는 말이란다. 평생 남의 연장만 빌려 써서야 되겠니? 내 연장이 있어야 편하지.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편히 살 수 있단다. 그러니 지금 공부하고 노력해라.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지식은 노력하여 겸비해라. 너희들



예수중심 중고등부 토요세미나(2016년 6월 4일, 중고등부 교육관)

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으니 고양이가 아닌 세계를 호령하는 호랑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애들아, 위대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남들보다 출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단다. 내가 두바이를 여섯 차례 가봤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두바이는 사막이란단다. 그런데 그곳에 실네스키장이 있고, 수상호텔이며 골프장이 있지. 거리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녹지를 조성했단다. 열사의 나라에 그런 것이 있다고 누가 믿겠니? 그러나 사실이란단다. 그것은 두바이의 왕 셰이크 모하메드의 지혜와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어느 날 사막을 지나는데 풀이 조금 난 곳에서 말이 풀을 뜯는 것을 보고, '아! 이 황량한 사막에도 물만 끌어오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하고는 2

지 아니? 남들은 신문을 팔면서 바로 돈을 받으니까 늦지만, 그 분은 먼저 신문을 돌리고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한 거야. 신문 값은 폐지 않도록 기도했고, 또 사람을 믿은 거지. 그러니 당연히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단다. 이것이 지혜란다. 지혜란 이렇듯 도르래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한단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자신을 비하하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않니? 또 환경이나 탓하며 운명에 순응하고 있지는 않니? 너희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너희의 두뇌를 깨워야 한다는 말이다. 내 인생은 누구도 아닌 내가 만드는 거야. 너희는 어린 나이가 아니다. 너희 인생을 신중히 생각하기에 충분한 나이야. 아

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게 내가 이끌어주겠다. 또한 얼굴은 너희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란다. 그러니 표정관리를 잘해라. 그것이 앞으로 너희 최고의 스펙이 될 거야. 당연히 말 관리도 해야지.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을 해라. 말이 곧 너 자신이니깐." 목사님은 매일 아침 발송되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해서 내 것이 되게 하라고 당부하셨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있다'(잠24:5)는 말씀을 깨달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미래는 당연히 밝다. 남이 가진 것이나 빌려 쓰는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까. 내게 있는 지식과 지혜로 사는 자가 되자.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JC아카데미

엘루체 컨벤션(9호선 구반포역 3번 출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1:1)



“왜”란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보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모든 영·혼·육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다독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한 구절을 봐도 ‘왜’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합니다. ‘왜’를 알면 ‘어떻게’라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인을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거하고 누리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또한 같은 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 조물주 앞에 피조물인 인생은 ‘아니요’가 아니라 오직 ‘예’ 하며 순종하라는 것(고후1:18)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너희에게도 잠재된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지을 때 이미 능력을 부여해놨으니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창1:28).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는 법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입니다(요일3:8).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멸망, 병, 저주, 가난의 배후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획이 숨겨졌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의 발에 떨어뜨려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입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이 되게 하기 위해 배고프게도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시험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 장래 일을 알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

를 회복하여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행1:8). 왜 엄마는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왜’라는 안경을 끼면 오해가 풀리고 진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왜 예수님이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가지에 비유하셨을까요(요15:5)? 이는 포도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듯이, 너희도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울이 떨어지니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건강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히니

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살전 5:17)?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는 말씀이 답입니다.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두드리면 때가 되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눅18). 그런데 조용히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아이가 자지러지면 엄마가 급히 달려가듯, 하나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하십니다.

또한 방언기도 하라 하셨는데 그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방언은 약한 것들이 알 아들을 수 없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대화가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

전14:2). 또한 방언은 마음의 곤고함에서 해방시켜 주기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패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사28:11~12). 제가 오늘에 있었던 것은 방언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고전14:18).

왜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시119:71), 고난을 통해서

정금으로 변화되고(욥 23:10), 고난을 통해 강인한 자가 되기

고난을 피하기보다 적응력을 키워라

요셉의 이야기는요? 꿈을 가진 자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심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살길을 마련해준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롬12:21). 입다를 통해서만 환경에 굴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값을 것을 가르치셨고, 에스더를 통해서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금식기도의 위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고전10:11).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사34:16). 그러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접목해보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의 삶의 결과를, 다윗을 통해 죄보다 회개가 중요함을, 한나를 통해 애통하는 기도의 위력을, 다니엘을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크나큰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시다. 그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왜 하나님은 십일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심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십일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3:11~12)고 하십니다. 룻펠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성경에 실었을까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됨을 알게 함이요(히9:27),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요14:6).

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이야기를 하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구88체육관)
02-533-9191

아폴로 보온밥통과 책보

“막둥아, 막둥아. 이거 받아라!”

국민학교 1학년, 3교시 수업이 끝나면 스트럭 교실 뒷문이 열린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 소리. 어머니셨다. 그리고는 책보를 조심스레 건네신다. 갓 지은 따순 밥과 국 한 그릇, 반찬통이 담긴 도시락이다. 요즘처럼 국물이 새지 않는 그릇이 있던 때도 아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그리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것들을 책보에 단단히 여미시고는 매일 그렇게 늦둥이 아들을 찾아오셨다. 그저 따듯한 밥 한 끼 먹이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시며...

그러나 그때의 필자는 철이 없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속이 깊지도 못했다. 매번 칭얼거렸다. 짜증을 내고 뺨강을 부렸다. ‘나도 아폴로 보온밥통 사줘!’

아폴로 보온밥통. 체크무늬 얇디얇은 비닐 가방 위쪽에 달린 큼지막한 자쿠(지퍼)를 열면, 속에 그릇을 담도록 홈이 파인 스티로폼으로 된 보온재가 나온다. 그리고... 끝. 더 볼 것도 없다. 보온은 둘째로 치고, 비닐 가방은 왜 그렇게 부실한지, 돌이켜 생각하면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나 부럽기만 했다. 두 형님과 누나에겐 다 사 주셨으면서도 정작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예뻐하시던 막둥이 소원은 들은 체도 하지 않던 어머니 때문에 더욱 속상하기만 했다. 매일 벌어지는 팽팽한 줄다리기. 똥끼 충만한 막내의 때 이른 반항. 결국 승리의 여신은 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얏호!

그러나 밥은 생각보다 따듯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흔들어대다 보니 짓눌린 밥은 항상 떡이 되기 일보직전. 반찬들은 한데 엉켜 정체불명이 되기 일쑤였고, 게다가 김치 국물은 흘러 넘쳐 가방 곳곳에서 원내를 짹짹 풍겼다. 그래도 그것이 좋다고 해 해 거리며 다 식어버린 밥을 뜨던 어리석은 인생! 그것이 바로 필자였다.

우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후2:9). 하지만 아둔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끌린다. 집착한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얻고 좇아라 한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처사일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에,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게 느낄 순 있어도 우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금은에서 찌끼를 제하면 장인이 멋진 그릇을 만들 것이다(잠25:4)

Remove the dross the silver,
취무브 더 주로스 더 쉘버,
and a silversmith can produce a vessel(Proverbs25:4).
앤 어 쉘버스미쓰 켄 프로듀스 어 베셀

除去金银的渣滓, 匠人能以作器皿。(箴25:4)
추 취쥘 인더짜 즈, 장 린 념이쥘미민.

♣너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며 장점을 키우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Remove your bad habits and build yourself with your strong points,
취무브 유얼 배드 해빗스 앤 빌드 유얼셀프 위드 유얼 스트루잉 포인츠,
then you will become great.
텐 유 월 비컴 그웨잇

要除去不好的习惯, 取长补短, 就会
요 추취 뿌호더 씨관, 취창부탄쥘후이
成为伟大的人物。
청위이위이따더런우.



:: 간중 ::

가족 50명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적인 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여름 이른 모내기하느라 바빠 아이들만 10명이 모여 놀고 있는데 사촌오빠가 소먹일 풀을 베러 갔다가 폭탄을 주워왔습니다. 오빠는 폭탄을 깨뜨려 총알이 나오면 그 총알로 새를 잡아 구워주겠다고 하여 아이들은 웅기쭈기 모여 구경하였습니다. 저는 웬지 불안하고 무서워 동생을 업고 한명은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던 중 팡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져 구경하던 아이들 7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죽은 아이들 7명이 나타나 좁고 배고프다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친구 한명은 같이 가자고하여 따라갔더니 그곳은 새까만 요단강 앞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나는 못가겠다며 돌아왔는데, 그때 어머니는 정신 차리라고 저의 뺨을 때리며 깨우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앓고 있는 저를 살리겠다고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폭탄 맞아 죽은 영혼들이 들어왔다며 곳으로 귀신들을 달랬지만 그때뿐 저를 괴롭혀 몸이 아프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서른다섯에 예수중심교회에 오게 되었고, 학생체육관 금요철야예배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 지옥을 간다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주장하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내가 겪고 본 사건속의 비밀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밤새도록 무릎을 쳐서 머리가 들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가족을 구원해야겠다고 결심하였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오로지 가족 구원을 놓고 3년 동안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방언으로 애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입술에는 피가 터져 마를 날이 없었고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식구들은 너무도 강박하여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쉬지 않고 금식하고 찾아가 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찾아가 전하고 기도하기를 3년을 반복한 1993년, 그 한해에 온가족이 모두 구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우리 일가족 50여명이 예수중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질 때 업고 뛰었던 동생은 지금 강화교회 박화평 목사이고, 손을 잡고 뛰었던 동생은 흥천교회 박태복 목사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더니 그때 살았던 남동생 둘은 목사가 되고 저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동생 박영미 전도사는 22년 전 심한 하혈로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았는데 안수를 받고 귀신이 드러나면서 병 고침을 받고 22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며 송파교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얼마 전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저는 50여명의 가족이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다 같이 듣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가족 구원의 비밀은 오로지 금식과 애통한 방언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속적인 화, 목요일 노방전도와 교도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의 말씀이 제 신조입니다. 부평교구, 문학교구, 중동교구에서 차례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배가 부흥시켜 주셨고, 전도에 필요한 물품도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통해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혼구원과 방언기도가 넘치면 부족함이 없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는 늘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천 중동교구 박영례 전도사

매일 아침 메시지가 배달됩니다

Good News



교육국 담임이 되신 이초석 목사님은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간구하다가 매일 아침 카카오톡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기로 작정하고, 6월 2일부터 이를 실천하였다. '나는 흥분해서 밤 잠을 설친다'며 밤새 심혈을 기울여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매일 아침 문자로 이초석 목사님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마음을 답글에 실었다. 보내주신 답신 중 몇 분의 글을 무기명으로 실는다.

✱ 대박! 목사님이 내 카톡에 오다니..., 꿈꾸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걸 최고의 개혁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이 정말 신바

람 날 것 같습니다.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 보내주신 말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다시 한 번 큰 꿈을 갖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아멘~~♡ 매일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보는 게 제 일상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폰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온지 1년 된 남편 폰에도, 제 친구초대 해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매일 매일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 목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내 주신 메시지가 고단한 일상에서의 무한한 오아시스이자, 더 힘차게 살아갈 용기이고 길잡이로 늘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보며, 저의 묵인 문제가 풀렸습니다. 회사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일을 하다 보

니 하지도 않은 말이 붙고 붙어 제가 해를 입고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올려주신 말씀을 보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 받기 위한 길이라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사랑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목사님의 멋진 사신과 함께 매일 받게 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 아버지~ 사랑으로 카톡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추가 했어요~ 이렇게 좋은 통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최고예요!!!

*** 목사님의 잠언을 매일 받아볼 수 있는 플러스친구 가입요령입니다.**

1.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엽니다.
2.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친구추가 이모티콘을 누릅니다.
3. 맨 위에 있는 검색을 누릅니다.
4. '봉우'라고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면 '봉우 이초석' 방이 생깁니다.
5. 방을 누르고 들어간 후 아래 왼쪽의 '친구추가'를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부자집에 한 청년이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날마다 그 청년에게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며,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 하였으나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운전기사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 차를 자네가 가지게나.” 그 청년은 너무 좋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인은 그때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가져도 좋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청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뒤늦게 주인의 말을 깨닫고 한밤중에 주인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 자동차 싫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 모두 다 싫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청년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영생복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교단소식 ::

살아남으려면 적응하라



JC 아카데미 청년대학세미나
(2016년 6월 3일, 구반포 열루체 컨벤션홀)

지난주에 이어 교육부 담임 이초석 목사님은 JC아카데미에서 다시 열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남는 자는 IQ(지능지수)나 EQ(감성지수)가 높은 자가 아니라 AQ(역경지수)가 높은 자입니다.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든 적응하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적응력이란 내 관리요,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을 보세요.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가로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환경은엄마 품속에 있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외가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일한 대가를 열 번이나 착취당했을 때 억울함도 참아야 했고, 아내가 뒤바뀌고 다시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까지 다시 7년이란 세월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적응했습니다. 자기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라헬을 기다리는 7년이 7일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만사 일체유심(一切留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음먹는 게 ‘적응’입니다. 솔직히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큼니다. ‘적응하라’는 말은 곧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도 목회 초기에 비가 새는 온실 속에서도 살았고, 자동차 속에서도 자랐고, 6개월 동안 라면만 먹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단이니 가짜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도 술하게 들었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됩니다. 나를 다스렸더니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즐기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만큼 영광이 크다는 것을 요즘 피부로 느낍니다.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더라 말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어찌 되는지 압

니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양이처럼 사람에게서 아부나 하고, 약삭빠르게 되고, 사람이 주는 죽은 것이나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고양이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처럼 우직하고 담대하게 키웠습니다. 적응력의 다른 이름은 ‘담대함’입니다. 야곱처럼 ‘비록 지금 내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훗날 거부가 되어 금의환향 하리라’, ‘내가 지금 비정규직이지만 나중에는 이 회사에 임원이 되리라’, ‘내가 지금 방 한 칸에 살지만 저택에서 살리라’는 꿈을 가지면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해지며,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적응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그런대로 지내시구려’ 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즐기다보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한 줄 압니까? 그것은 행복의 커트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0평대 아파트는 살아야하고, 월 소득 얼마는 되어야하고, 차는 중형차 정도는 타줘야 하고, 자식이 명문대

는 다녀줘야 하고.... 이런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못 미치면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즘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아니면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짧아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경험이요, 그것이 적응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에 목매는 자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감히 자존심을 버리고 진군할 때 역경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AQ는 얼마입니까? 온실 속의 화초는 밖에 내다놓으면 바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고난에 감사하며, 이 기회를 통해 역경지수를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목사님이 젊은이들의 지도자로 자처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 행함이 없는 지식은 그저 백과사전 속의 남의 지식에 불과하다. 바라건대 우리 젊은이들이 진정 오늘의 말씀을 깨닫기 바란다. 깨닫는 것은 바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